

## 영문 주민등록표 발급 절차 자동화로 연 25,000 시간 아끼고, 개인정보 노출 잡는다

- 주민등록시스템-정부24 자동 연동,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제거
- 행정 절차 자동화해 연간 25,000시간 절감, 행정 효율 극대화

- 앞으로 영문 주민등록표 등·초본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주민등록 담당자가 직접 영문 등·초본을 내려받아 등록하는 절차가 자동화되어,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.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3월 12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영문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.
- 기존에는 민원인이 정부24에서 영문 주민등록표를 신청하면, 민원인 주소지의 지방정부 담당자가 영문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뒤, 시스템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정부24에 수동으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.
  - 이 과정에서 각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, 비슷한 민원이 집중되면 다른 민원인의 파일을 잘못 올리는 등의 실수도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종종 지적되기도 했다.
- 이에,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정부24를 직접 연동해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, 인적 오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.
  - 민원인이 영문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, 지방정부 담당자가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영문 정보를 검증한 뒤 발급 버튼만 누르면 서류가 자동으로 정부24에 등록되어 민원인에게 전달된다.

- 번거로운 내려받기·올리기 과정이 생략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사고 위험은 제로에 가까워지고, 연간 약 30만 건이 발급되는 영문 주민등록표 발급 시간이 단축되며, 연 약 2.5만 시간\*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.

\* 발급 건수(약 30만 건) X 검증 및 수동 등록 시간(건당 약 5분) = 약 2.5만 시간(150만 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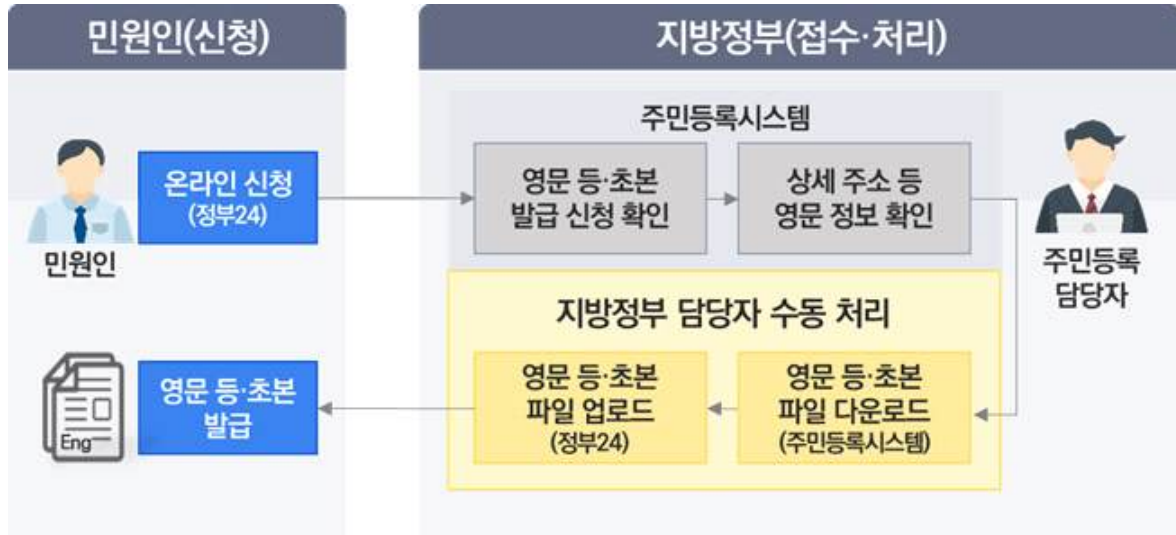
- 김민재 차관은 “이번 개선은 비록 행정 내부의 작은 절차의 변화처럼 보일 수 있으나, 지방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이 정부 서비스를 더 신뢰하게 만드는 중요한 결실”이라고 강조하며,

- “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치혁신실 주민과	책임자	과 장	최이호 (044-205-3141)
		담당자	주무관	황성일 (044-205-3166)
담당 부서	인공지능정부실 통합포털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현관 (044-205-6450)
		담당자	사무관	정순희 (044-205-6447)



□ 개선 전



□ 개선 후

